

국화꽃 향기 백제왕도 익산에 깃들다 “시내버스 하차태그 꼭 찍으세요”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9일까지 전시·이벤트 등 다채

성년을 맞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식을 열었다. 낮부터 밤까지 빛나는 축제를 나타내기 위해 야간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김운과 양하영, 소킴, 투키이즈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천만송이 국화축제 20주년의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이번 축제는 ‘국화꽃 향기 백제왕도 익산에 깃들다’는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진행되며, 축제 기간 이후에도 11월 5일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아름다운 국화작품은 중앙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마루사지와 익산역, 신흥근린공원 등에서도 볼 수 있다.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전시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축제장인 중앙체육공원은 특별전시장을 비롯해 가을낭만정원, 국화테마정원, 올해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정원 등을 조성해 어디서 찍어도 인생 사진이 나오는 포토존이 곳곳에 연출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20주년 기념 대표조형물로 제작된 선물상자는 웅장함과 함께 한지 미륵사지 등의 섬세한 모습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조형물은 익산을 대표하는 국보 미륵사지석탑이 담긴 선물상자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한 국화축제 2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국화축제는 특별전시장 무료 입장과 함께 축제 기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해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

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익산 3대 사람이야기 이벤트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 즐기는 다양한 체험까지 있어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의 폭을 넓혔다.

국화축제 인생사진 인화, 익산지역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관람객 꽃다발 증정, 익산지역 특산물 시식행사, 하림 치킨로드 국화축제 연계 투어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 밖에도 익산시 봉사단체와 읍면동에서 마련한 착한 먹거리와 간식은 물론 국화 관련 체험과 우수 로컬푸드까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 만큼 품격 높은 축제를 준비했으니 꼭 오셔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내달 1일부터 승·하차 분석 위한 의무제 시행

군산시는 도내 최초로 오는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가 시행되면 버스에서 내릴 때 환승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교통카드를 하차카드기에 찍어야 한다. 민약 카드를 대지 않으면 다음번 버스를 이용할 때 기존 50원의 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산 시내버스의 경우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등과 달리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승객들은 환승 시에만 하차 태그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하차태그 의무제 도입을

통해 △승객 통행패턴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정책 결정 △승·고등학생 무상교통 및 재정지원금 산정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무제 도입 초반 시민들께서 느끼실 불편에 최선을 다함”이라며 “교통카드 사용과 하차태그 참여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하차태그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한다

군산시는 사회적 배려를 누구나 월명호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16억원(녹색자금 9.6억원, 시비 6.4억원)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배드민턴장 뒤 편백숲까지 약 2.1km 구간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

월명호수 무장애나눔길은 휠체어, 유모차 등이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경사도는 8% 이내로 시공하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산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구역에는 팽나무 광장 전망데크, 편백 치유의 쉼터를 조성해 시민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월명호수 만수위보다 숲길을 상하에 조성함으로써 집중호우 피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했으며, 식재할 시 공을 통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16년에 조성한 기존 무장애나눔길과 연결해 월명호수 순환 산책로가 완성되며 보행자들도 보다 쉽게 월명호수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월명호수를 누구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산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구역에는 팽나무 광장 전망데크, 편백 치유의 쉼터를 조성해 시민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으로 시민 불편 해소

익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사유지가 사유지 인이나 진출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재산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특히 기존가액 20억원 규모의 일본도산 302필지(592,000㎡)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해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

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며, 매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회계과 재산관리계 시는 사유지가 사유지 인이나 진출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공유재산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특히 기존가액 20억원 규모의 일본도산 302필지(592,000㎡)를 대상으로 도로개설 잔여지 등 활용가치가 없는 행정재산을 적극 발굴해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금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자매도시 경주시의회와 간담회 가저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지난 19일 익산을 방문한 자매도시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익산시의회의 경주시 방문에 이은 답방이며, 또한 경주시의회는 올해로 20주년



익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익산을 방문한 자매도시 경주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

올해 총 1523필지 대상 추진

군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실재와 다른 지적도면을 바르게 정리해 토지분쟁 해소에 나서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국비 3억3,000만원을 확보해 선양동 일원과 임파면 숲산리 일원 총 1,5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사업지구인 임파면 읍내리 일원과 여천도리 일원 총 2,073필지 84만9,450㎡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여천도 일대는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도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월명동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15억5천만원을 확보해, 총 15지구 8,15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지적불합치들을 정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HDC 현대산업개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분양 본격

교통·자연·편의 등 생활 인프라 갖춰

30일 특별공급... 31일 1순위·내달 1일 2순위 청약 진행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정당계약은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일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군산시 자곡동 산37-1번지 일원에 들어서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226㎡ 총 72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60세대 △84㎡B 106세대 △84㎡C 106세대 △84㎡D 85세대 △114㎡ 261세대 △226㎡(펜트하우스) 4세대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무엇보다도 257만㎡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을 가깝게 두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책 및 여가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단지

개발권을 확보하고 은파호수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남향 위주 배치와 선호도 높은 4베이 구조 평면 설계를 전 타입에 적용했다. 이에 더해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 강화형으로 설계해 쾌적함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다.

교통 여건도 좋다. 단지와 인접한 새만금북로와 월명로, 백석로 등을 이용해 군산 전 지역 및 주변 도심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군산고속버스터미널, 장항선 군산역과 대야역, 서해안고속도로(군산IC)를 통한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다. 군산원산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2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이동이 가까워 직주근접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도 풍부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조감도

하다. 군산의료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군산예술의전당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차량 10분 내 거리고, 인접한 수송

지구와 미장지구의 중심 상권 및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지곡초, 군산초, 동산중, 군산여자상업고, 군산시립늘푸른도서관, 군

산시립도서관 등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에 사는 것은 집 앞에 257만㎡ 규모의 은파호수공원을 품은 자연 속에서 사는 듯한 특별한 에코라이프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지역에서 선호하는 아이파크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가치가 지닐 수 있어 자연 속에서 최첨단의 편리한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분양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 순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7일이며,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전북 군산시 미장동 535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2월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방문의 해 홍보 위한 임시 관광열차 운영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천년사랑 관광열차가 운행했다.

익산시는 2023 익산 방문의 해 홍보와 열차 이용 관광객 확보를 위해 익산 대표 관광지인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연계하는 ‘천년사랑 열차’ (임시 관광열차)를 지난 21일 운영했다.

시는 가을은 익산이때? 라는 주제로 서울역에서 출발해 익산역에 도착하는 익산 천년사랑 열차 탑승객들에게 직접 홍보물을 전달하며 “2023년 익산 방문의 해” 뿐 아니라 다채로운 익산시·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등을 홍보했다.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 풍물 공연으로 시작해 마루사지, 아가페정원, 하림 치킨로드 견학으로 이어진 일정은 ‘천만송이 국화축제’ 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관광객들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 1년 뒤에 받아보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이벤트도 진행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 교육장협의회 연계 익산 교육 관광 자원 소개

전북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익산을 찾아 주요 교육 관광 자원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익산시는 지난 21일 전북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교육 관광 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여행은 전북교육청 10대 핵심 정책과 전북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교육장협의회’가 익산에서 열리며 ‘교육 관광 도시 익산’의 면모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는 이번 여행이 교육과 체험을 통한 익산 교육 관광 자원을 알려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인 학생 단체 유치를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마루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세계문화 유산을 다수 보유한 익산은 차별화된 교육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광 마케팅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평생학습축제 교육한미당 성료

‘제11회 2023 익산평생학습축제’&익산교육한미당이 지난 21일 모현공원 일원에서 큰 호응 속에 열렸다.

익산교육지원청과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홍보 체험 △성인 문화 한미당 △송리마을 학교 △과학 체험 한미당 △진로·창업 체험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는 성인 문화 학습자들의 신나는 울림으로 포문을 열었다. 청소년 동아리와 평생 학습 수강생들 역시 기량을 가감 없이 선보였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유공자 명과 문해 백일장 수상자 22명 등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는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공연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모현공원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발표회에 나선 20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280여명은 사물놀이와 난타, 에어로빅, 기타공연, 라인댄스 등 제마다 한 해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화합을 다졌다. /익산=이재춘 기자